

고용 질 높아진 광주시 미화원 인기

광주시 보건연·우치공원·518센터 등 채용공고 공무직 전환·연장 채용에 '수십대 1' 경쟁 예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5·18기념문화센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등이 27일 일제히 공무직 청소미화원 채용공고를 냈다.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가 청소미화원 등 민간용역업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해 고용의 질이 크게 높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미화원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보고 공무원 정년 60세를 넘으면 5년간 촉탁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공무직 전환 당시 6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올해 일부 시 산하

기관의 유예기간이 끝나 65세 이상 청소미화원들이 '정년퇴임'하면서 만 50세 이상에서 만 59세 이하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다.

청소미화원, 시설경비 등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돼 있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공무직' 청소미화원 등은 2년 전 민간용역업체 파견근로자의 임금 수준, 정년 등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도 '호봉제'를 적용받아 매년 인상된다. 급여수준은 과거에 비

해 최소 15% 이상 인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청미화원 김모(여·64)씨는 "과거 업체에 있을 때도 62세가 정년이었는데, 공무직으로 변경된 후 5년간 촉탁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주변에서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도시철도공사의 경비, 청소미화원 공모에는 수십대의 경쟁자를 보이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본청과 산하기관 등 청소미화원, 검침원 등 859명 가운데 475명을 공무직으로 신분을 바꿔줬으며, 올해 말까지 전일 직집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에는 상수도본부 지역사업소 검침원 54명을 올해 말까지 공무직으로 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中企, 유럽 3개국서 수출상담회
광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광주지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코 프라하와 폴란드 바르샤바, 그리스 아테네 등 동·남유럽 3개 지역에서 시장개척활동을 벌여 총 9건 339만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지난 24일 그리스 아테네 디바니카라벨호텔에서 열린 수출상담회. <광주시 제공>

산수도서관, 오늘 그림책 작가와 만남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은 29일 5층 다목적실에서 '11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행사로 작가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그림책 관련 작가인 우창수, 김은희, 오지근, 정봉남, 황진희 씨를 초청해 '그림책 토크, 내 마음의 토크'이라는 주제로 빛그림 노래동화, 일본 그림책 낭독, 그림 그리기, 작가와 함께 하는 북토크를 진행한다.

우창수 씨 등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은 웹서비스인원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동시를 내용으로 한 공연을 선보이고, 그림책 교육의 권위자 황진희 씨는 '나무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즐거움 겨울나기' 등 일본 그림책을 낭독하고 소중한 사람에

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전달한다.

'그림책 토크, 내 마음의 토크'를 지은 정봉남 씨는 영아부터 100세까지 함께 읽는 그림책의 의미에 대해 참여자와 진솔한 이야기 나누어 예정이다.

참가자는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 후에는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저자 사인이 담긴 책을 한 권씩 증정할 예정이다. 참가 접수 및 문의는 산수도서관(062-613-7810)으로 하면 된다.

이날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한마음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오지근, 그림책 작가와 놀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윤현석기자chadol@

119신고 신속·정확 통역하기

광주소방, 통역도우미와 좌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시청 17층 회의실에서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인 119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3자 통역 시 예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3자 통역 도우미로 영어 3명, 일어 4명, 중국어·독일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 각각 2명 외에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각각 1명 등 7개 언어권 총 19명과 119종합상황실 소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지역 외국어 3자 통역도우미는 현재 10개 언어권 41명이 활동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제1하수처리장 증인처리시설. <광주환경공단 제공>

습지 살린 광주환경공단 친환경 공정 호평

하루 생활하수 73만 정화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창출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의 체계적인 하수 관리가 호평을 받고 있다. 매일 광주지역에서 버려지는 하수를 철저히 관리해 영산강 수질 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28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등의 하수를 하루에 약 60만 정화하고, 황룡강과 영산강 합류 지점에 위치한 광주 제2하수처리장에서는 풍암지구와 하남지구, 평동공단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루 12만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준공돼 효천 1, 2지구와 주변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효천하수처리장에서도 하루 1만6000t의 하수를 정화해 광주에서는 하루 총 73만6000t의 하수가 맑은 물로 정화되고 있다.

광주에 위치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광주환경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우리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며 하수를 맑은 물로 정화해 영산강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환경공단에서는 모든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물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고 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정을 개선하기도 하고, 약품유입 사전 시설의 약품 투입방법을 개선해 처리효



제1하수처리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들.

율을 증대시키고 약품사용량을 감소시켜 예산절감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광주 제2하수처리장에서 서창오미습지의 재생에 성공하기도 했다. 영산강 일대에 약 8000㎡로 형성된 생태 수변공원인 서창오미습지는 그간 정상적인 습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모래로 이뤄진 하천둔치의 특성 탓에 대부분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공급되는 배관 주변만 정상 기능을 발휘한 채 방치됐다.

이에 제2하수처리장은 습지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방류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끝에 처리장과 습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급배관을 설치했다.

이 배관을 따라 하루 3000t의 물을 습지에 공급하던 것을 2016년 하반기 5만 t까지 늘려 공급하고, 습지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되살아나게 됐다.

또 광주환경공단의 '수요자원 거래시

장 참여'도 눈길을 끌고 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란 산업현장 등에서 피크시간 대에 절약한 전기를 수요관리 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을 통해 한국전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제1·2하수처리장은 1000kW 용량으로 참여하여 2017년 6월 기준 2300만원의 수익을 냈다.

또한 에너지 자립과 사업을 실시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제1·2하수처리장과 효천하수처리장 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지난해 기준 896만 kW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일부는 자체 사용하고 일부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 "협오시설로 인식되기 쉬운 하수처리장의 인식개선을 위해 처리장 내의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